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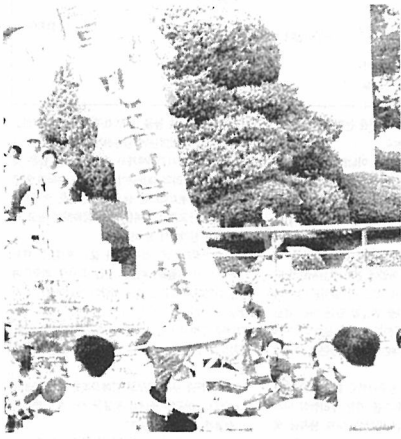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6년 9월 9일(월) 제672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권 주권 박재우 편집장 고병권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외)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08 FAX 961-4183 (통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경기도 용인군 오현면 용인리 산 8

서울, 민남특위 발족으로 분위기 전환도모

용인, 1차 협상후 순항 예상



지난 5일(금) 서울캠퍼스 노년극장에서 약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협상보고회'와 민주남부 승리를 위한 '협대기'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는 6차까지 진행된 협상보고회와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민주남부승리를 위한 협대기를 다졌다.

서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민주남부 승리를 위한 협상단·선전단·실사단·교양단으로 구성된 민주남부 특별위원회(민남특위)를 중심으로 학내 분위기를 모아 내내 집중하고 있다. 아침마다 유인물 배포와 도서관 휴게실을 찾아가 학생들 한명 한명을 만나는 작업 및 주말에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목) 사회과학관 206호에서는 '민주남부 완전 성사와 외대발전을 위한 애국외대 전체일꾼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6일(금) 3시 노년극장에서는 2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보고회'와 민주남부 투쟁승리를 위한 '협대기'가 열렸다. △8월 범민족대회 투쟁 보고 △6차까지의 협상 보고 △이후 투쟁 계획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총학생회장 박성동(상경·경영 4)은 "민주남부를 승사시키기 위한 가장 큰 원칙은 민주남부주의 비민주남부자를 분리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대 7300학우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편 지난 3일(화)에 진행되었던 6차 협상에서 등록금협상에서의 학생참여 부분과 관련 대학당국은 "기존의 예·결산자문위원회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의견제진 수준의 등록금 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또한 등록금인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예산 집행이 시작된 후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목) 예정된 7차협상에서는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와 외대발전을 위한 집행할 수 있는 '외대발전법' 외 대민주주의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다.

용인

용인캠퍼스 학원지주회투쟁이 개강 이후 대학당국과 1차협상을 했으면서 향후 하반기 투쟁의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된 점이다. 하반기 학자투쟁의 과제를 놓고 대학당국과 처음으로 의견을 타진해 본 이날 협상결과, 대학당국은 지난 학기 협상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준에 따라 이후 협상은 양자간의 공감대를 갖고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가 제시하는 학부제에 대한 요구안에 대해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폐과 위기에 몰리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대학당국은 조만간에 설문조사를 실시, 학생들의 전공선택을 검토하여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방침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계열제로 시행되는 경향대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대학당국이 편익으로 수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97년도 여름학기 학부제 관련, 사실무근일뿐더러 앞으로도 전혀 계획없는 사안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대학당국이 2차 등록기간을 지난 5일(목)부터 12일(목)로 앞당김에 따라 학생들에게 1차 등록금부의 이유와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처사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오늘 확대운영위원회의는 전체간부들과 하반기 학자투쟁에 대한 심도있는 공유 및 결의를 다시한바 다지는 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은진·전영수 기자



외대 만들기

▲ '내가 참여하면 7000이 함께 합니다.'

본관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쓰인 글이다. 요즘 이문동 교정 가득 새벽새처럼 민주남부가 구석구석 내려 앉아 있다. 개강과 함께 '외대 만들기'전국학생가 한창이다. 교육재정화보 없이 경중 뛰어오른 등록금의 인하와 올바른 책정이라는 기초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 민주남부. 지난 학기 높은 투표율과 83% 넘는 찬성율로 가결되었던 하반기 등록금 투쟁의 기상은 예보되었다. 태풍주의보. 광복하게 진행되는 공안 탄압에서 외대는 또다른 물결속에 휩싸였다. 국책대학선정과 무관한 것은 이제적으로 적극적인 학교 당국과 학생회의 협상은 계속되었고 6차협상까지 이르면 승리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 요구안의 핵심인 등록금인하와 학생참여보장은 학교 당국의 강력한 부정으로 복지시안 몇개와 뒤로 미루지고 있다. 방중 불꽃튀는 우편전까지 벌어지면서 양자는 서로의 진심을 주장했고 학생과 학부들은 누가 진짜 '동고동지'인지 가려내려 했다. 방중 열린 학부모임에서는 많은 학부들은 민주남부와 관련 외대의 모순을 물었으며 총학생회로는 하루 100여통에 이르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외대발전의 길을 묻고자 한다.

▲ '숨쉬는 외대 세계를 호흡하는 외대'는 그냥 일과이지 않는다. 외대에 산적한 모순의 실태를 돌아보면 너무나 외치는 외대발전의 문은 열릴 것이다. 실패하는 교육환경과 이를 받치는 틀튼한 교육재정, 그리고 부당없는 등록금과 학교경영의 학생참여의 보장안이 돈뎌기와 물에 맞선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원성을 줄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학생은 서로 끌고 밀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 마지막으로 민주남부에 얽힌 실태를 들고자 소리없는 교정에 내걸린 플래카드 하나. '우리는 지금 외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승주

합수부, 대학신문 이적성 수사착수

국보법 적용 편집장 등 구속박심

한총련 연세대 8·15행사 이후 정부의 '한총련 외해'의 움직임이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 본교를 비롯 88개 대학이 압수 수색 당해, 학내에 있던 학생들이 불법으로 연행됐으며 인하대의 경우 학내집회를 진행하는 도중 학교 상공에 열기가 퍼 해산명령을 내려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또한 부산외대는 지난 4일(수) '자주대'이라는 조직과 연루되어 총·부학생회장을 비롯 학생간부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그간 대내 여론을 담당해온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도 시종일관 연세대 8·15행사에 대한 올바른 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연세대 통일투쟁의 폭력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재적이 중지된 상태이며 이밖에도 서울여대, 한남대, 밀양산업대, 숭실대 등이 광고와 기사 등으로 마찰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합동수사본부가 대학신문에 게재된 글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수사하라고 지시해 앞으로의 거센 탄압과 대응이 예상된다. 합수부는 "대학신문이 대한내외의 이념전파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대학신문을 수거, 검토한 결과 이적성이 드러난 경우 대학신문 편집장 및 간부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신문은 지난 6일자 신문의 1면과 2면에 '한총련, 학보사 장악' 조종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연세대 8·15행사에 대한 사실보다 호도해 버렸다. 서울신문은 이 기사에서 각 대학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대학신문이 폭력시위를 호도하고 정부 비판기사를 경정적으로 실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학신문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에 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회장 정승수(경기대 학보 편집장)군은 "마찰을 겪고 있는 그간에 기성언론이 보도하지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왜곡 보도해 온 연세대 통일투쟁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는 2차에 걸쳐서 학생운동 및 민주운동 배후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실보다 호도해 버린 것은 대학당국과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며 '정론을 지키려는 선배일꾼들의 노력과 애정'이 아니라 연세대 언론의 자유를 다시 군사정권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며 "특정집단 기본권인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국 12개 대학의 기자들은 이를 좌시하지않은 않을 것이며 진실은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측이 앞으로 학자투쟁에도 학내 압수수색을 계속하겠다고 하며 대학신문사와 학교당국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민지 3면) 박병수 기자

사·형

임정기자

대학부
박운경(사회과학계열 1)
이동훈(상경계열 1)

사회부

김정희(서양·불어 1)
엄예진(통·체코어 1)

문화부

서운경(서양·불어 1)
박노라(인문학부 1)
홍연호(서양·독어 1)

사진부

김학영(인문학부 1)

지면 안내

학생연락처 대학 기복 목집 ... 3 학생들의 방생 막으먼 학원 안정되나! 재정관리, 모호지... 우리의 지학생 ... 6 단순히 논거위한 모호지는 실다. 이정공단 발행기사 ... 8 공단주변 기업의 모순명제가 속어가 고 있다.	한국언론을 진전한다 ... 9 5·18 당시 'K공작'과 보도지침의 관행 대외교육의 희망과 위기 ... 10 대학총학생회의 제기대정을 알려준다. 언제면학 ... 12 96년도 민주남부가 성공했다면 과연 외대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 가상책임을 통해 미래를 가했다.
---	---

추가등록 안내

1996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 1996년 9월 5일(목)부터
1996년 9월 12일(목)까지
2. 등록장소 : 제일은행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3.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 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 할 것(등록금 납부통지서에 장학이 표시
된 학생은 제외·차액만 납부)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할 것

* 추후 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경리과 또는 용인캠퍼스 총무과에 문의바람

1996. 9.

재무처장

내가 참여하면 7000이 함께 합니다

●민주남부는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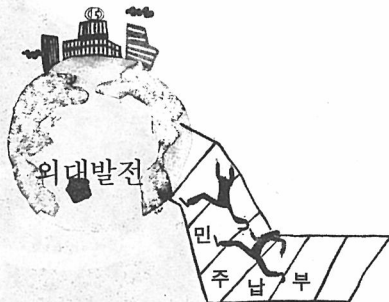
1. 직접수납
도서관 앞에서 9월 20일까지 총학생회 수납처로
내시면 됩니다. (토, 일요일은 총학생회실로)

이런 분들은 꼭 직접 수납하십시오

· 분할납부자 - 85만원 이상의 납입, 보호자 인강
증명서와 도장, 분할납부 통지서를
추가하기 10학점 미만 신청자 - 수업료의 반액
납입, 졸업준비금면제, 장학증서서 제출
· 장학금 수혜자(재·재입학자) - 장학금액을 재한
등록금, 학교고지 등록금 산본 및 학생증, 전액의 납
입할 경우 장학금을 이후 환불해 드립니다.

2. 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무통장 입금
입금하신 때는 입금하신 분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
하기 위해 '입금하시는 분'란에 다음의 예 처럼 다
섯자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 상경계열 1학년 마동하 → 상경마동하
그리고 반드시 전화 961-4434 또는 수납처로 연락
주십시오. 무통장 입금증은 수납처에서 영수증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 - 수납지 또는 961-4409, 4170,
4434로 문의 해 주십시오.



외대발전

민
주
남
부

애국외대 30대 생동하는 총학생회

국대학 상황 및 학원안정화 대책의 본질

학내 민주화열기 꺾기

학생자치권 침해 ... 학내분규 '불씨'로

반점자



'96년 한총련 연례대 통일투쟁은 일반에게는 '연대 사태'로, 그리고 학원가에서는 '연대항쟁'이라는 단어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정은 한 사건을 놓고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공안정국 한파를 달하는 청년학생의 입장에서 다시금 역사의 소리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특히 9월 1일 일련 5·3 사태 이후 발표되어 지금까지도 막강하게 학생자치권을 억압하고 있는 '학원안정화 대책(이하 학안대)'의 부활은 올해의 공안정국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보는 개간 이후 학원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新) 학안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지난 21일(수) 교육부는 불법적인 학생운동의 자금 및 활동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학생지도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학생지도대책'을 전국 대학·

학원·교에서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라 현재 단계,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서강대 등 많은 대학이 이에 준하는 지침을 각 총학생회에 전달한 상태다. 단국대의 경우 학생들이 조기귀가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하고 단정·단수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지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교수 1인에게 적정수의 학생을 할당 지도토록 하는 '분담 지도 교수제'를 도입하고 불응대상자와 불응 유인물은 발견되는 즉시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연세대는 △대외부 사정검열 △동아리 활동규제 △사총련 사무실 폐쇄 등의 내용이 전달됐다. 고려대 역시 △사총련 사무실 및 토익 강좌 사일 금지 △한총련 사무실 폐쇄 △동아리 활동규제 등의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서울대의 경우도 이념학습 동아리의 학내침투차단을 위해 학칙에 따르지 않는 동아리는 지원금배를 삭감하거나 동아리방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본교도 지난 21일(수) 열린 전체교수 간담회에서 '96학 학생활동 지도 대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납부방 관련,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학부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대책이 마련됐고 엄정한 학사관리, 학내 기숙금지 등의 대책이 나왔다.

이와 같이 출몰이시행처별 전국적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학원안정화대책' 방침들은 학생자치권을 침범, 학생회를 왜곡시키려는 무기로 휘둘러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영삼 정권의 교육정책을 더욱더 굳히는 의도로 분석된다. 97년도부터 들어서는 교육시장개방, 교육재정확보, 교육유형개선, 총장직선제 등 2학기에 놓여진 대학의 문제점들은 산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내 압수수색과정에서 경찰은 '수배자 검거'를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학내분규로 농성하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해가는 등 정권과 학교간의 의혹을 드러냈다.

경기대의 경우 학생들이 접거하고 있던 총장실을 가장 먼저 침탈했고 민주납부와 관련해 71명이 재징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본교의 경우도 학내침탈로 외대법정학생추진위원회에 소환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해가는 등 정권과 학교간의 의혹을 드러냈다.

이런 사건으로 편집장 포함 3명의 기자가 구속된 송신대에는 이 신문이 제작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측은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성적이 되지 않은 나머지 기자들도 모두 신문사를 그만두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되는 대학 압수수색으로 신문사 역시 피해갈 수 없었는데 경기대는 캐비닛이 파손되어 책, 서류, 컴퓨터 등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를 들어간 후 며칠간 검토하고 현 장순수 편집장(1971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에게 기소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외대, 충남대, 군산대, 부산대, 부산외대 등의 신문사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편집실에서 자료보관과 행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의 대학신문이 점성체제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각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학원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내 언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학 안대의 효시-97년도 제기 배경

열사정국 돌파하고 92년 대선으로 '패륜아'로 매도... 학생회 '붕괴' 작전

그해 4월은 명지대 1학년 새내기 정경대군이 진압정국에 의해 타살함으로써 정경대군 운동이 후끈 달아오른 시기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이따라 전남대 박승희와 경원대 천세영군이 이 분신하였고 이는 10명의 열사로 이어졌다. 열사정국의 형성은 6공정권의 최대위기가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정경은 김기실 열사의 죽음에 대해 그의 동료인 김기실 열사가 유서를 대할때 주면서 자살을 방조한 것이라며 민족민주운동(민민운) 진영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여론대란을 치밀하게 계획된 집단구타로 몰아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학원가에 경거망동을 일으켰다.

문영의 중추인 국무총리 내각자가 학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막힌 각본이었다. 학생들은 계란과 밀가루를 그에게 투척함으로써 김귀정 열사의 한을 풀어주고자 하였고 정경은 계도인들을 이용한 대대적인 선전공세로 정경식을 만들고 스스로를, 한편으로 학생들은 패륜아로 몰아부치고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호기를 맞은 정경은 대학입국에 압력을 행사해 전국 총(학)학생회에서 학안대를 발표토록 하는 한편 6·3사건을 전대함과 연계된 사자에 치밀하게 계획된 집단구타로 몰아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학원가에 경거망동을 일으켰다.

정경은 수습책으로 당시 총리였던 노태우를 전격 정경하고 정경은 전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함으로써 수세국면을 모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급박한 변동에서 정경대군에 의해 참가했던 정경대군 김귀정 열사 사망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6공 정권은 그해의 죽음을 시위과정에서 벌어진 학생간의 실수에 의한 압사로만 발표하였고 그들이 행하였던 투쟁을 이의 연장으로 지금의 탄압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듯 앞으로 압수수색은 계속될 것이며 공안정국의 분위기는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경대군을 지키려는 기자들의 의지도 만만치 않아 마찰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은 수습책으로 당시 총리였던 노태우를 전격 정경하고 정경은 전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함으로써 수세국면을 모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급박한 변동에서 정경대군에 의해 참가했던 정경대군 김귀정 열사 사망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6공 정권은 그해의 죽음을 시위과정에서 벌어진 학생간의 실수에 의한 압사로만 발표하였고 그들이 행하였던 투쟁을 이의 연장으로 지금의 탄압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듯 앞으로 압수수색은 계속될 것이며 공안정국의 분위기는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경대군을 지키려는 기자들의 의지도 만만치 않아 마찰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대학언론탄압 사례

22개 신문사, 제작·배포중지 등으로 몸살 대학언론 잠재우기 위한 정권의 공세

전국의 대학신문이 '96 한총련 연례대 통일투쟁(한총련 투쟁)'과 관련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대다수 학교가 한총련 관련 기사의 게재 불가를 축소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사 게재에 관한 주간교수와 학생기자들의 마찰을 넘어 신문사 폐쇄, 학생기자 사퇴 등 대학언론인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대의 경우 주간교수가 "지금의 신문을 내지 말고 16일 정도 신문사를 내려. 그러면 연대기사는 절대 실을 수 없다"고 요구하고 있어 아직도 제작이 중지된 상태다. 기자들이 한총련 통일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운운하며 "편집장은 나와 함께 사퇴하자"고 주장하며 기자들을 신문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학교에 오더라도 주간교수 사무실로 출근시키고 6시에 꼭 퇴근하도록 만드는 상식이 하의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렇듯 한총련 통일투쟁과 관련 크고 작은 마찰이 진행되고 있다. 제작중지, 배포금지, 신문회수, 경찰차나 시청에서 압박전화 등의 유형으로 손을 뻗고 있는 가운데 모든 대학이 연대 관련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이 정상발행되는 곳도 학부와 학교가 협

상을 통해 서로 마찰을 피하고 있다. 제작중지 되었거나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곳은 삼척산업대, 교대, 송신대, 서강대, 성공회신대, 금오공대, 카톨릭대 등이다. 배포금지의 경우 서울대, 이대, 숙대 등이 있다. 연세대는 편집인과 주간교수가 참작한 회의에서 신문수거를 결정했다. 학생기자들은 해방과 공개사자를 요구하며 진상조사가 현행이다. 안양대, 경기대 등은 압박전화와 관련한 경찰차에서 끌려오고 있다. 특히 경기대는 학내문제만 안한 11명의 제작진 처리와 관련 권고수협회의의 성명서를 실지 못하게 하고 백지신문을 발행하게 하는 등 학내사인과 맞물리고 있다. 한명의 기자가 구속된 충남대는 "주간교수가 탄원서를 써줄테니 기사 좀 줄여라"라는 식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공주대, 광주교대 등은 이에 기사를 삭제하거나 1단 기사 2줄로 보도되었다. 특히 광주교대는 "신문사를 폐쇄시키겠다"고 위협하며 관련기사가 전혀 없는 채 신문이 발행했다. 전주대는 배포된 신문의 책임을 주간교수가 회피하고 편집장을 문책했다.

이 외에도 한남대 주간교수는 '연대 기사 1면에 넣지 마라. 대학평가에 끝날때까지 한총련

기사 절대 실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남대(9월 9일자)신문은 현재 인쇄중지 상태이다. 밀양산업대는 "전대기권 공동공고 실지 마라"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기자들의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편집장 포함 3명의 기자가 구속된 송신대에는 이 신문이 제작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측은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성적이 되지 않은 나머지 기자들도 모두 신문사를 그만두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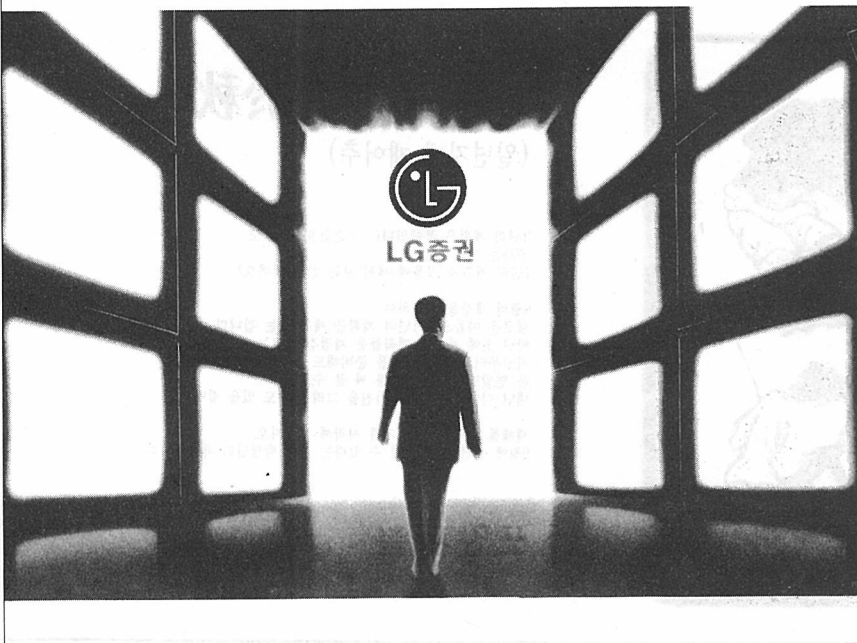
계속되는 대학 압수수색으로 신문사 역시 피해갈 수 없었는데 경기대는 캐비닛이 파손되어 책, 서류, 컴퓨터 등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를 들어간 후 며칠간 검토하고 현 장순수 편집장(1971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에게 기소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외대, 충남대, 군산대, 부산대, 부산외대 등의 신문사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편집실에서 자료보관과 행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의 대학신문이 점성체제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각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학원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내 언론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正道경영·초우량 LG



OPEN!
1월 1일 ~ 12월 31일

LG증권의 문은 365일 열려있습니다

LG증권 상시채용제도 실시!

인재의 입장을 우선하는 LG증권 -
특정기간에만 인재를 뽑는 채용형태에서 벗어나
1년 365일 입사희망자들과의 상담을 거쳐 지원서접수, 면접, 채용을 실시하는 상시채용제도를 실시합니다.

LG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문의처: 인사팀(02)768-7162-5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gs.co.kr) PC통신(전국망) 103101

글 쓰는 순서

- 1.외대인의 인식
- 2.국내 지역학의 수준
- 3.본교지역학의 제도적 문제
- 4.타대학 탐방
- 5.학과에서의 지역학
- 6.대내-지역학 발전을 위한 좌담회

②외대의 실태는 ... 지역학?

후진성 면치 못하는 한국의 지역학

전문인력 국내교육으로 충당못해 정부·기업, 대규모 투자 시급



한성주 기자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은 그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세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전문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점, 대부분의 연구소가 영세성과 어둡게되어 대한 중추성을 면치 못하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연구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필요한 시간과 분석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최근 한국 지역연구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한 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그 글, 세종연구소 국가전략(1996년 봄, 여름호)에 실린 신원환, 이성철의 "한국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중 필요한 부분들을 요약한 내용이다. 그리고 외대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 계속 정리될 것이다.

정보결핍으로 인한 한국정부의 고선능력 한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강대국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지역연구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국학·대학 부설·민간연구소들이 신실하고, 기성 인사사회 과학의 여러 학파들은 지역연구를 한 하위분야로 인정하여 전공교수를 임용하고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외국에 관한 지식전승이 아홉에 육이만 전적으로 의존한 관행이 중언되고, 국제관계학과 및 각종 지역학과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향도 생겨났다.

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지역 불복과 주체와 급변조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등의 다양한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필요성은 우리사회의 여러 부문들로부터 지역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학계가 축적해 놓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지식, 이해의 수준은 재반 요구사항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내부에는 지역전문가나 통상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함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들을 활용하거나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방성이나 융통성조차 없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1990년대 들어 지역연구에 관련된 제도, 연구기금, 인력, 연구결과들이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다. 지역연구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국학·대학 부설·민간연구소들이 신실하고, 기성 인사사회 과학의 여러 학파들은 지역연구를 한 하위분야로 인정하여 전공교수를 임용하고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외국에 관한 지식전승이 아홉에 육이만 전적으로 의존한 관행이 중언되고, 국제관계학과 및 각종 지역학과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향도 생겨났다.

지난 1991년 이래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금은 현재까지 연평균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1991년 2억원, 1995년 18억원), 민간기업과 사립재단들도 지역연구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전공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의 양적 확대와 이들간의 학문적 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연구의 역사나 축적된 내용성은 미진할 뿐이며, 이에 대한 현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90년대 한국 지역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지역연구자의 지역별 전공별 분포도(1992~1994)는 다음의 표와 같다.

지역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인류학	법학	역사학	계
미주	미 3					2		5
캐나다								
멕시코		4						4
중남미	브라질 3							3
기타	6			1				7
유럽	독일 1	2	1			1	3	5
서유럽	프랑스 2					1	2	5
이탈리아							1	1
스페인								
기타	1	1		1		4	4	11
동유럽	러시아 6	6	1					14
동유럽	4							6
중동	중국 14	6	1				2	24
아시아	일본 9	2	4		2		2	19
동남아	12	1					2	15
남아시아	1	1			1		2	5
중동	4	1					4	9
아프리카	2							2
계	72	20	8	2	4	8	14	138

* 이 조사기준은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금회 참여자에 한하고, 관련지역에 대한 학위논문 또는 최근 3년 내 관련지역에 관한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경우, 그리고 어문학 분야, 역사학에서 고대와 중세는 제외된 것이다.

상위의 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첫째, 현단계 지역연구는 주로 정치학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학자는 총 인력 중 52%, 다음으로 역사학이 17%, 경제학자가 14%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법학분야의 참여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연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지역연구자들의 집단적 특성 중 역사 중심적 지역(미국, 서유럽) 연구자들은 과소하고 비해 주변부지역(동남아, 라틴아메리카, 러시아와 동유럽)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많다. 그레도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각각 24명, 19명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데 반해 미국

에 대한 연구자는 5명뿐이다. 이에 비해 주변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14명), 러시아(14명), 동남아(15명), 중동(9명)의 경우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를 전공한 역사학자는 한 사람도 없고 동남아를 전공한 역사학자도 2명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나마 그 의미도 한층 퇴색되어 버린다.

지역연구 전문인력 해외유학에 의존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의 지역연구 전문인력의 공급이 국내의 수요에 따라 국내 교육기관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유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국내의

정치·경제에 편중된 연구

현 단계 지역연구의 연구수준을 질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일단 양적인 팽창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의 면에서는 우선 1992년도에 340편에 불과한 지역연구논문이 1993년도에는 639편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주제별로 1992-93년도 연구성과를 보면 정치·행정·법률분야가 34.35%, 경제·경영분야가 25.27%, 사회·문화·교육분야가 14.21%, 국제관계·언론분야가 17.20%, 기타 3.4%로 나타났다. 정치·행정·법률분야와 국제관계·언론분야를 합한 것이 51.55%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역연구 성과가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특정한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연구 전문가에 의한 기초연구보다는 정책연구 내지 응용분야 연구가 거의 압도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연구가 선진화될수록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문화, 역사, 사회연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지역연구의 주제별 편향성은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예산 대형화·특성화 필요

대학의 지역연구를 담당하는 중요한 거점의 하나는 연구소이다. 대학의 부설연구소는 연구자료를 조직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하며 그 결과물을 출판물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 배포하는 체계의 중심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연구 관련연구소들이 각 대학(교)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

당히 고무적이다. 대학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지역연구소 역시 90% 이상이 연간 예산 500만원 이하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지역연구의 성과물 배포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대개 연간지 형식으로 출간되는 지역연구 잡지들은 약 500-700부 정도 찍어 관련 학회나 외부인사들에게 배포된다. 그러나 잡지의 집, 연속성, 배포의 범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 출간되는 잡지의 대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지역연구 관련 연구소들은 어문학과와 연계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대학부설 연구소들은 사실상 '학부부설'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구소가 학과의 관련 연구자들과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역연구는 어떤 특정 학문이 독점하기보다는 여러 학문이 연계되어 다학문적 내지 학제적 연구로 거듭날 때 질적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대부분 연구소들이 어문학과 중심의 학과에 종속되어 있는 체제에서는 연구비나 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큰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망 연구소나 군소 연구소들을 통합할 위

에 기본적인 예산과 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대형화, 특성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표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구소들의 현황과 대표적인 외국지역연구소들의 현황이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구소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연구소들도 외국의 유수 지역연구소들에 비하면 여전히 영세한 규모, 비정문화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장기적인 대형투자가 없으면 대학과 연구소의 지역연구원형은 결코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외대 대학원 학술연구협약 지역학 분과〉

연구소명	예산(단위:천원)	전임연구인력(명)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753,942(학고 59,858/외부694,984)	전임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5,696(학고 15,158/외부180,538)	행정9, 전임0
한양대 중소연구소	292,988(학고 64,766/외부228,222)	행정7, 전임3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147,000(학고 21,000/외부126,000)	행정13, 전임2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30,500,000(1989/90)	전임259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	28,000,000(1991)	전임86
영국 서섹스대발전연구소	4,500,000(1988/89)	전임99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2,300,000(1988/89)	전임14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2,100,000(1989)	미확인

〈표2 대표적인 국내·외 지역연구소 현황〉

POSCO메시지 개강편

●다원 김홍도
눈잡이(동숙화 중 일부)



‘一年之計在於秋’

(일년지계 재어추)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一年之計在於春)’고 공자는 말했지만, 1년의 계획을 가을에 세워 보는 건 어떨까요?

9월의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1년의 계획을 세워 보는 겁니다. 학년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재검점해 보는 것도 좋겠고, 지금부터 시작할 일들을 준비해도 좋겠지요. 왜 연말까지의 계획표를 짜 볼 수도, 내년 이맘때까지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듯 2학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9월에 신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만의 특권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학 술 정 보

학술단신

출판부 새 책 출간

『스웨덴어-한국어사전』, 『배우기 쉬운 태국어 테이프』

외대출판부에서는 스웨덴어-한국어사전과 배우기 쉬운 태국어 테이프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되는 이 사전은 초학자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외대출판부는 “이번 출판은 학교의 숙원사업이며 앞으로 독수리사전 발간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배우기 쉬운 태국어 테이프 배우기 쉬운 태국어 교재의 내용을 혼자서 배울 수 있도록 수록했다. 제1부는 자음과 모음, 제2부는 음절의 구성, 성조, 문법의 해설 등이 수록돼 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스웨덴어-한국어사전 정가: 3만원

배우기 쉬운 태국어 테이프 정가: 8000원

제 1차 러시아문화 공개 강좌
러시아에 대한 현실적 이해 도움

한국노어노문학회는 오는 9월 7일(토)부터 11월 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성균관대학교 시청각실에서 러시아 문화공개강좌를 연다. 이 강좌는 러시아문화, 의식주, 정교예술, 시각예술, 연극, 국민과 음악, 러시아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을 다룬다. 이번 강좌를 준비한 한국노어노문학회의 강 실교수는 “이 강좌는 러시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환영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러시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 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문의처: 961-4158

신방과 보도사진부

멋져라 여행

고민과 신념이 들어있는 사진

“사진은 구도잡기와 만일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라며 보도사진부 조영학(정대-신방2)군은 사진작가가 가져야 할 신념의 중요성을 말한다.

보도사진부는 신방과 소속의 학회로서 지난 85년 결성되어 현재 2학년 6명, 1학년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학회는 순수사진이나 단발성 고발사진과는 다른 성격의 사진을 찍는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주제를 접근해 나가는 다류(다류)성 사진을 찍는 것이다. 그 주제 또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작자의 주제는 “해방 50년, 분단 50년”이었고 그전에는 서울의 모습과 한강, 그리고 교통문제 등을 다뤘다.

조군은 “사진은 상당히 주관적

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사진학회 회원들은 그러기 위해 화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목요일에 세미나를 가지기도 한다. 지난 1학기에는 철학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고, 2학기에는 역사에 관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또, 보도사진부는 일년에 2번 사진전을 연다. 1학기에는 1학년 연수의 성격이 짙은 실험전을 연다. 반면에 2학기에는 열리는 정기전은 방학부터 주제를의제에 접근해 나가는 다류(다류)성 사진을 찍는 것이다. 그 주제 또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작자의 주제는 “해방 50년, 분단 50년”이었고 그전에는 서울의 모습과 한강, 그리고 교통문제 등을 다뤘다.

조군은 “사진은 상당히 주관적

이 책

제도언론의 허와 실

‘100년전의 독립신문은 대나무 언론이었지만 지금 신문들은 갈대언론과 같다. 땅이 흔들릴만큼 거센 돌풍이 불면 살아남는 것은 대나무가 아니라 갈대이기 때문이다’

『갈대언론』은 대표적인 한국언론의 변방이다. 그러나 언론이란 본래 ‘가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다. ‘언론이란 본래’는 본래 언론 비판자이다. 갈수록 시대를 앞서가는 언론은 정부 시대에서 언론을 비판하는 창으로 조선시대로 넘어가려 한다. 필자 변상욱은 현재 CBS 국제부장, 뉴스레터도 연가를 맡고 있으며 CBS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교육훈련 부부국장, 한국기자협회 편집 위원



언론이란 본래가...

언론이란 본래가...

하고 있다며 그 한 예로 행정부 뉴스에 이어 받은 행정부 뉴스를 들고 있다. 또한, 3장은 ‘월도잡의 상동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접근하여 언론의 ‘가짜’를 가려내려고 한다.

요즘 언론의 태도는 더욱 현실

하고 있다며 그 한 예로 행정부 뉴스에 이어 받은 행정부 뉴스를 들고 있다. 또한, 3장은 ‘월도잡의 상동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접근하여 언론의 ‘가짜’를 가려내려고 한다.

진실을 보도하기는 신문의 생명이기 때문에 언론은 현실에서 사실을 그대로 쓰고 논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언론인의 말을 인용하여 언론 종립성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요즘 언론의 태도는 더욱 현실

하고 있다며 그 한 예로 행정부

정치에 대해

성(性)을 침실밖으로 끌어내자

앞으로 5주 동안 ‘결혼 제도’, ‘포노그래피와 하이틴 로맨스’, ‘성적 이데올로기’, ‘낙태를 둘러싼 문제들’, ‘미성년자에 대한 연재물 계획이다. 이 글들은 사실 해박한 지식이나 대안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세상을 향한 ‘제7’라는 의문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들을 통해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론이 생겨날지 바란다.

침실밖으로 나오는 성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무엇도 말하지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성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체계이다. 이 글의 첫 문장을 읽고 ‘성’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별지 아한 것’, ‘침실 속 이야기’, ‘비밀스러운 것’ 등을 연상케도 모른다. 친구들과 물레 보았던 포르노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런 어딘가 이나, 술자리에서 도도히 떠다니

알뜰게살... 이렇듯 성은 언제나 사적인 주제인 채로 다뤄져 왔다. 이 글은 현재 얼굴을 붉게 하고, 뭔가 공격적이고, 혐오스러우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적이지만 ‘침실 속의 성’을 ‘침실 밖으로’ 끌어내려는 이야기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성’과 ‘정치’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있는 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동감있는 어휘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성’이란 말이란 말은 확실히 생소하지만

성정치(性政治)란 ‘남(혹은 남/성, 여/여)가 만나 친교를 맺고 나이가 짝을 하는 일 때문에 정치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지금껏 공적인 영역의 ‘정치’와 사적인 영역의 ‘성’은 함께 놓일 수 없는 말처럼 여겨졌다. 성정치는 이런 점을 문제시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성정치는 성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담론으로 전환시키고 하는 의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공적인 ‘정치’와 사적인 ‘성’

미국에서 여성해방운동이 처음으로 쓰여진 시점, 그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그로 인한 한탄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고 있다고 한다. (집안 일은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는 언제쯤 출산할까? 내 남편이 후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렇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분명 사회적, 정치적 구성을 이룬다는 논리를, 여기에 나온 것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이었다. 여성 해방 운동은 이처럼 ‘성’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정치적인 것으로 의제화시킨 운동이며, ‘성 정치’라는 용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을 사회적 정치 구성요소로 보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성’이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

정치?

하지만 사실 성은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다. 물론 예전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성관계의 양식, 즉 결혼, 채워,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의문과 규칙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을 남성과 여자가 만나 성행위를 하며, 결혼과 가족을 이루는 일로 보는 생각은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그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성을 지나치게 성애화하고, 사화함으로써 사회와 무관한 자연적 진리라 믿어버린 것이다. 현재 이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성기 중심의 이상에 이외의 모든 성적 행동을 도덕이나 반대로 낙인찍고 저주하는 ‘동성애 공포증’이나, 남성과 여성을 모두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남성/여성성’의 신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성차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으로 위장한 가부장적 핵가족 제도, 그 속에 자리잡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배와 남성(이를 혹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스스로 억압,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본능’이 아니라 자연적 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성이 이루는 권력관계

그렇다면 왜 성을 공적인 담론으로 전환시켜야 하는가? 먼저, 게이 해방 운동을 통해, 게이라는 정체성은 지금껏 도덕이나 비정당이라는 의학적, 도덕적인 담론에 의해 배제되고 이해되어 왔고, 지금도 그 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게이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일차적인 정체성은 성적 정체성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게이들에게 대한 취업 거부나 구애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제외하고 이들이 기존의 담론을 받아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하지만 게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 성적 혐오와 관련된 일 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해방운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권리’라는 담론에 의해서는 여성성의 삶, 현실 특히 성적 정체성, 혹은 성의 문제가 전연 제기될 수도, 공격적으로 토의될 수도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근대 체제에 참여하며 사적인 영역으로 철도화되었던 성의 영역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침투되는지를 밝히고, 그것



성은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성은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며 사회적 활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사회적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의학과 심리학에서 성과학 성심리학 같은 학문들이 생겨나고, 이 학문들은 성을 성교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으로 성을 의미화하고, 또 성행동에 수반되는 심리적 작용으로 성을 의미화함으로써 우리

유형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성에 대하여 결코 하게 부러지고 있는 사적인 이 대를 버리고, 이 작업들을 통해 성이 가족은 물론 우리가 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성정치는 성의 개방이나 성의 자유가 아니다. 우습게도,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마치 프레스주의자를

나름에 상품으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겨난 것 같다. (“무슨 부인 어떻게 뽀빠!”라든가, “얼마나 재미있을 영화예요...”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성을 비정치적인 현실로 간주하는 사고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성정치는 일상 생활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사적인 삶의 세계를 정치적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성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의문시하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억압과 차별의 권력 관계를 비판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성정치 연구모임, 세상을 향하여)

기술휴머니스트-쌍용

“인간을 위해 태어난 기술이
이제는 지구와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최후의 기술, 그것은 인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63년 루게릭병으로 2년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으나 그는 불굴의 의지로 죽음과 장애를 극복, 지금은 우주의 신비에 가장 근접한 세계 제1의 천재 물리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을 위한 기초기술 개발, 쌍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첨단산업.

그 뿌리인 기초과학 기술 연구 개발이 바로 ‘큰 기업’의 할 일입니다. 기술 개발이 가져다 줄 편리함 못지 않게, 그 기술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또한 ‘큰 기업’의 할 일입니다.

기술은 오직 인간을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술휴머니즘’ 정신으로 쌍용은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 시국토론회

민주세력 연대통해 보수회귀 막아야

한총련 탄압, 민주세력 탄압 전조전



한총련강경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일(화) 민간통일운동본부와 공안반발 저지를 위한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발제를 맡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학회의 김삼근 공동대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의 이기욱 변호사, 민가협,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영희씨, 언론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손석춘 기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최규열 정책위원장 등이 참가했으며 전국연합 전역세력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자들은 한총련 행사 강경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여학생인권문제, 언론의 보도에도 동 각 분야에 대한 발제와 악시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은 한신대 김삼근 교수(경원학과, 민교협공동의장)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는 정치적 대의민주주의의 원리가 깔려있다. 그러나 대의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내지 조건은 하나로는 공개성과 이성적 토론의 존재가 제시된다. 그런데 공개성과 이성적 토론이라는 요건이 우리에게 과연 한반도에도 갖춰진 것이 있는가. 각종의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을 받고 있으며 국가와 재벌에 의해 모든 정보와 독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진정한 대의제가 이뤄질 수 없다.

대학의 자치권 강화돼야

이번 탄압을 통해 비판적 지성의 산실이어야 할 대학교의 정권의 시너처럼 정부와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여 나가고 있다. 전국 여러대학이 이미 동리방 패, 세, 시위학생 처벌강화와 일관적응동부서의 격리방향을 세웠으며 학내에 대한 사찰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길러주는 해학책은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공개적으로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활짝 열고 학생의 자치활동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교육개혁안을 통해 지나치게 경쟁의적인 시장경제 논리를 대학에 강요해왔다.

따라서 이번 연세대 통일투쟁으로 조성된 공안정국속에서 교육개혁안의 신보수주의 속성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토론까지 병행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모든 종류의 사상과 지식을 실험할 수 있는 학문연구공동체이다. 대학의 실험정신 그 무엇에 의

해서도 위촉해서는 안된다.

한총련만의 '투쟁'이 아니다

한총련 연세대 통일투쟁이 가져온 정국변화는 이미 예고되고 있다. 김경관은 한총련의 특정 조직만이 아니라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몰아 이태원로거 공세를 강화하고 한총련의 배후세력을 발본채원한다는 명분하에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것은 학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이태원로거 대립으로 발전시켜 학생운동과 민족민주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당면한 민주적 개혁요구를 저지하고 보수적인 재편을 기도하는 데로 나갈 것이다.

이번 탄압사태가 결코 돌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급변하는 부패 강화된 노동운동과 인권운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도는 내년도 대선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의 정국변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종 개혁과 이를 비판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통해 보수세력의 표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간세력은 지난 현대사, 특히 6월항쟁 및 그에 따른 재한적이라는 하지만 국민적인 승리와 그 이후 몇차례에 걸친 이른바 공안정국을 통해 '연대'를 통한 집권이라는 지름을 얻었다. 이번 한총련 탄압은 그에 따른 연대의 행동을 촉구하는 전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투쟁은 정권의 성격체제를 명확히 규정해 줬다는 성과를 남겼으며 다시는 보수회귀되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안된다.

정리 사회부

죽음의 땅 여천공단을 찾아

“이런 곳에서도 사람은 살았다”

정부의 구체적인 이주대책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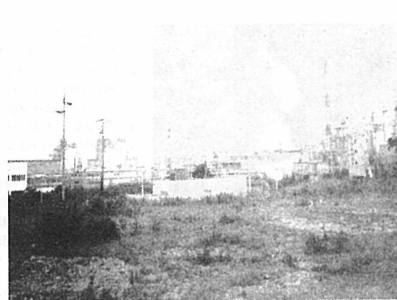
“나는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아 오열이고 뭐고 상관 없지만, 앞날이 참 창한 젊은 사람들이 고통받는걸 보니 못 참겠어. 빨리 이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거대한 굴뚝들이 비로 는 앞에서 서면 연기를 내뿜는 것을 팔로라미 바라보며 한 할머니가 한숨과 함께 내뿜은 말이다.

울산공단과 더불어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지어져 ‘한국 공업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여천 공단. 그러나, 이제 여천 주민들에게만은 경제 발전의 상징이 아닌 죽음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다.

여천공단을 찾은 날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하늘은 서울을 연상시킬 만큼 회황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는 밖으로 나갔다가 마을로 돌아올 때는 코를 손으로 막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하도 심해서요” 작년에 여천으로 이사왔다는 이은희(24)씨는 말한다. 여천공단 주변 마을의 피해는 67년 공단의 들어선 이후 계속 이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고향을 강추해 왔다. 하지만, 토양·수질·대기오염이 심각해져 소나무가 말라 죽고 농작물이 산



여천공단은 30년 동안 산출해 왔다. 주민들은 공단이 주는 혜택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 더이상 여천공단 문제는 여천만의 문제가 아니다.환경과 자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변화 없이는 언젠가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여천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또한, 농작물뿐 아니라, 주민들도 호흡기·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기 불만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여천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 의뢰, 2년 4개월만에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올

조 얻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여천공단 주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었다.

여천공단 주변마을 ‘생존권’ 쟁취 및 이주대책 위원회 위원장 조봉옥씨를 만나

“공장폐쇄도 불사하겠다”



구결과가 다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과거의 연구결과를 믿는다. 2년 4개월과 13일의 연구 기간의 결과 중 어떤걸 믿겠는가? 또한 환경원은 정미 직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의 반응은 “모든 주민들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한다. 주민들은 공단 초창기부터 직접

몸으로 공해의 피해를 느꼈기 때문에 이곳이 위험한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를 절실히 원한다.

“대책위를 운영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외압이나 힘든 점은 없었다. 힘은 알아야 왜 그랬는지.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었다. 힘은 조금은 대책위에서 일 하는 사람 모두가 가장과 생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일로 생업을 포기하고 이 일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 문제가 대책위 활동을 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다.”

“이후의 대책은 “정부 발표를 지켜보며 결과에 따라 행동수위를 조절하겠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나, 현 상황 같이 계속된다면, 공장폐쇄와 같은 강경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 KAIST연구에 참가한 본교 이상권(환경학과) 교수는 “두 기관 조사가 다 맞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측정할 날의 기상변화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환경연과 과거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염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이고, 아울러 화학 약품을 다루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7일(화) 회의를 열고 여천공단 최근점 마을로 오염이 심한 월하, 평야, 중흥 등의 3개 마을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의 마을에서도 이주 해당지역인 마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오염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여천공단 전체 주변마을에 대한 이주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마을에 대한 이주비용도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기업에 전가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천 공단사태의 일차적 원인 제공자는 기업이다. 하지만 공단을 조성한 것은 정부이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제대로 관리를 못한 정부의 책임 역시 너무나 크다.

정부 대책이 늦을수록 여천지역 일대 환경이 악화되고 주민들이 죽어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백범수 기자



송근우

백산그룹의 전임직원은 해마다 단체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피가 흐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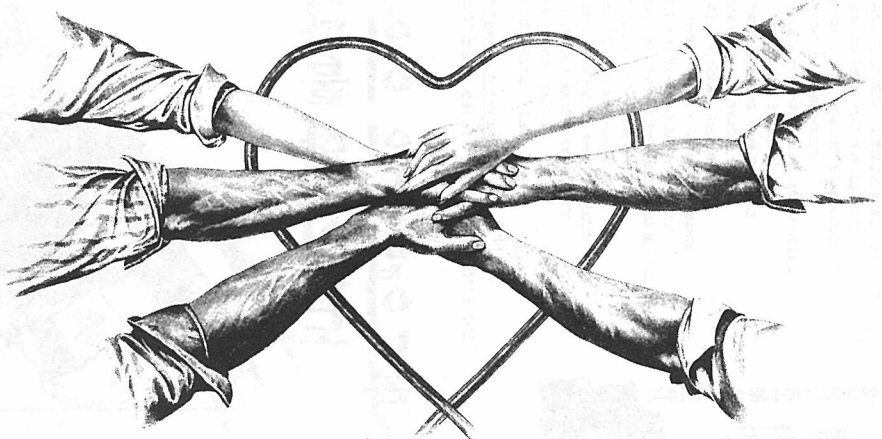
말로 하는 사랑은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내 피를 나누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로

사랑을 실천하는 백산 사람들—



백산그룹

◆ 짚막 인터뷰

“중임제 개헌, 국민들은 결코 지켜만 보진 않을 겁니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이 알려지기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그 범죄의 주범들을 처벌하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학생들과 여러 민주단체들의 끝없는 투쟁과 국민들의 진심에 대한 열망. 그것이 바로 광주를 새롭게 비추준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및 재벌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한편으로는 기쁨을 한 편으로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비록 사형 등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사면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주장하는 문민정부에 대해 확인받는 길은 5·6공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8·15특사를 통해 5·6공 인사들을 대거 사면시키는 등 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다시 넘어가기에는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완전한 처벌, 완전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로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본보는 본고 학생과 시민들을 우익위로 인터뷰, 이번 공판과 관련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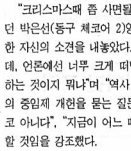


최근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 12·12와 5·18사건의 선고공판결과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법전문가는 본고 독이어나 2학년 학생이다.



사건은 이번 선고공판 결과 책임자 원천 처벌받았으나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그리고 형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면설에 대해서도 그는 “사면되는 것은 확실할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은 3당연합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또한 항간에 나오는 중임제 개헌설에 대해서도 권력안정과 정권재창출만을 꾀하는 김영삼정권의 음모인 것 같더라 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임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대 그 사람이 중임을 할 만한 인물은 아랑께 그에게 문제지”라고 말을 연 한 시민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공판의 경우도 국민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또 사면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TK 측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 같은데” 하면서 이번 공판이 정치쇼로 끝날까봐 걱정했다.

“크리스마스때 즈음 사면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맞맞아요” 한 학생은 이번 공판이 열릴 줄 알고 있던 박은선(동구 체교 2)은 갑작스런 기자의 질문에 당황해하며, 12·12와 5·18의 선고 공판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내놓았다.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사면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언론에서 너무 크게 떠벌리는게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설과 관련,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기 뭐냐”며 “역사 바로잡기는 하늘 좋은 말뿐이었나”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정부의 중임제 개헌을 묻는 질문에 “발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런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국민들은 결코 아니냐”, “지금이나 이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며 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과오는 각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언론을 진단한다 2

신군부의 신(新)언론 통제

보도지침, 빈틈없는 정보통제

언론기본법, 신군부의 시너역할 - 각종 독소조항 포함

- 〈글 쓰는 순서〉
- 1.한총련 왜곡 보도
 - 2.보도지침관행에 대하여
 - 3.국제적 망신인 북한 '오보'
 - 4.제도언론의 태생적 한계 ① - 재벌
 - 5.제도언론의 태생적 한계 ② - 정권
 - 6.우리 언론의 나아갈 길



우리 나라 언론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에, 재벌에... 그중에서도 정부에 직접적으로 종속돼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도지침'이다. 5·18당시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전국의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독도들의 사태'라고 보도했던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학생들의 연세대학교 통일투쟁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에 내러오는 '보도지침' 실재로 이번 사건을 취재했던 많은 기자들은 아무리 취재를 해도 실할 수 있는 비례를 느껴야 했다고 실트했다. 이처럼 한국언론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보도지침의 관행에 대해, 그리고 이를 무조건 따르는, 아니 '알아서'기는 '한국언론의 모습을 소개한다.

편집자

1996년 한국일보 편집부 김주연 기자는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 편집국으로 매일같이 하달되는 '홍보조정지침'을 비밀리에 모으고 있었다. 신군부는 계약언론의 언론검열을 연장, 문공부내 홍보조정실을 통해 언론통제를 계속했었는데 보도의 내용은 물론 편집행태까지 규제하여 지령은 당시의 언론통제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보도지침'을 공개한다는 것은 5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한다는 의미였다. '보도지침'의 폭로방법을 모색하던 김기자는 고민 끝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통해 이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넘겨받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기관지'를 '복합호(1986. 9. 6) '보도지침-관행과 언론의 음모'를 발행, 마침내 전대미문의 언론통제 방식인 '보도지침'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군사정권으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고 한국언론의 부끄러운 실상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5공 정권은 민주적책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신군부, 언론통제법 통해 정보장악

12·12와 5·18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언론통제법과 언론인 대량처벌 등 강력한

정책을 언론을 '담금과 채찍'으로 길들이며 끊임없이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군사정권 아래서 언론은 정권의 시녀가 됐고 그 관행은 '문민'아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탄압과 함께 정보통제를 장악했다. 언론통제법은 통제의 편의를 위한 언론계 구조변환인 동시에 체계적이고 삼시적인 언론통제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통제 장악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통신사의 통제통제를 통한 국내의 정보의 독점을 할 수 있다. 5공 정권은 언론통제법 당시 주재기자제도를 없애고 중앙지에 대한 지방 뉴스 제공과 지방지에 대한 중앙뉴스 제공을 연합통신에 집중시켰다. 연합통신이 국내 뉴스를 일괄 담당, 국내정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신의 주 공급원까지 일원화 해 해외 정보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연합통신은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등 언론사로서 독립성을 거의 보장받지 못했다. 또 북한 관련 정보는 특별히 안기부 산하의 내외통신이 전달하게 해 철저한 정부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나머지 한가지가 문공부를 통한 '보도지침' 하달이다. 1981년 1월 9일 5공정권은 문공부 내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했다. 언론통제의 일원화를 위해 홍보조정실은 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회의는 물론 기관별의 언론사 출입 및 상주, 기사검열 등 언론규제를 총괄 수행했다. '보도지침'은 가장 직접적인 보도통제 방식이었다. 기사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의 중앙지까지 보도지침의 77.8%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5공 정권은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각종 행정 통제체계를 갖추고 '언론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법적 규제도 마련했다. 언론기본법은 국가보안법에 버금가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문공부 장관이 행정적 판단에 따라 언론사의 정·폐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언론사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더해 프레스카드제와 기사자·기자단 운용 등 행정적 장치가 사용하던 방식까지 그대로 유지해 그야말로 빈틈없는 정보통제가 이뤄졌다.

자발적 협조제에 대한 각종 통제

통제의 한편에서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를 위한 각종 통제가 베풀어졌다. 이른바 '담금과 채찍'으로 불리우는 일면적 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새로운 신문발행과 방송사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제하에 살아남은 소수 언론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대대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구로로, 민수 등에서 카르텔을 형성했는데 정부는 이를 묵인·방조했다. 한편 언론인에 대한 임금과 후생 복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인들이 비판정신을 상실하고 체제내에 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같은 혜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공정권은 파행적인 기구 운영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방송공사'가 대표적 경우인데 방송 광고의 일부를 '언론공작금'으로 조성해 '언론관리'를 위한 재정을 충당했다.

6공, 의형적 언론자유·자지검열 강화

6공정권은 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보도지침과 같은 노골적인 정보통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기본법을 대신해 '경각행령'을 통해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고 언론자유와 정적으로 신문장간 불이 일어나는 등 언론계는 의형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그러나 언론통제는 다른 방식으로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방송공사'가 대표적 경우인데 방송 광고의 일부를 '언론공작금'으로 조성해 '언론관리'를 위한 재정을 충당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HYUNDAI OIL REFINERY CO., LTD.



"In The Near Future"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대 학교육의 희망찾기 - 대중평을 생각한다

질적변화 무시해 양적 팽창 초래

대중평 폐단... 성과 뛰어넘어



동명대학교 건물에 학공 1년만에 학생을 드려냈다. 큰 건물안에 얼마만큼의 교육적 내실을 담보해 놓지가 대중평 이후 우리가 돌아야 할 과제다.

외대들의 일기

93학번 외대들은 2월 학기 복학을 했다. 정문에 들어서니 테니스장이 있던 소운동장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대학원 옆에도 동그스름하게 생긴 건물들이 솟아 있었다. "충남대에서 우리 재단은 가난하다고 그러셨는데... 한 생각을 하며 친구 만나러 왔는데 도서관에서 무슨 지하학에서 복학한 기가 나들었다."

"군대 가있던 2년동안 이토록 외대가 많은 변화를 했구나"는 감회에 복학신경을 하고 돌아 감으로 돌아왔다.

개강날, 나도 평등대생이었던 생각이 즐거워 왔다. 아니! 과거 사리진 것이야.

분명히 난 김경대 'b' 과에 입학했는데 과거가 있어졌다. 이른바 학부제다. 어렵사리 시험에서 안도하고 군대다 왔더니 누가 나한테 또 한바탕의 시험을 안겨준 것이야.

악간의 서면들이 들어간 강의실. 교수님의 강의는 변함이 없고, 30분마다 타지는 농담도 2시간이넘 폭로고, 출산자는 매일 수십권의 책을 과번 태내도 도서관에 없는 책이 많구나.

"절반 반하면 뒤, 속은 그대로" 내

97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해이다. 교육시장개방과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이 두 난관을 뚫고 교육개혁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내년 외대는 대학종합평가를 받는다. 전국 모든 대학에 각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유도한다는 대중평.

그러나 대중평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전가, 학생복지지원 탄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2년의 연재를 통해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편집자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이며, 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와 학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과평가 인정제로 구분된다. 이중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는 대학을 학부과 대학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학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실비, 재정, 경영의 6개영역에 걸쳐 5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대학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아래 표 참조)

94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대교협은 '모든 평가항목이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는 것을 근거로 학부는 500점 만점에 328.3점 대학원은 100점 만점에 66.5점을 넘으면 인정평점을 내렸다.

대중평의 5단계 절차

지난 경영개발 평가 이후, 낮은 순위로 발표된 경영개발을 찾아간 그 이유를 묻자 "대학의 자립평가 보고서에 기반하여 평가를 진행하다보니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너무 솔직하게 적어 내렸는지"라는 항변을 하던 교수들이 기겁했다.

이렇듯 대중평은 각 대학의 자립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5단계의 절차에 의해 시행된다.

▲평가신청과 대상대학의 선정 ▲대학별 자립평가연구의 수행 ▲사립평가 및 현지방문평가의 실시 ▲인정위원회의 판정 및 판정결과와 공포 ▲재평가 인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각 대학을 순차적으로 평가해, 교육대학은 1997년, 신학계 대학은 1998년, 개방형 대학은 1999년에 일반대학과 함께 평가하며, 마지막 2000년에는 그간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을 재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불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평가 주기에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양은 변화, 질은 그대로

실제로 대중평 실시 이후 많은 대학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95년 3월, 전국 60여개 대학에서 2800명의 교수가 신규임용된 데 이어, 9월에도 1800여명이 새로 임용됐다. 이 밖에 교육과정 개편, 시설·설비확충, 조

지 정비, 대학발전계획 수립, 발전기금 확충 등 여러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사이 우리 캠퍼스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8개년 되는 건물 신축, 최첨단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요구하던 강의실 보수, 학생용 교재, 냉방비 실시, 방음창 설치 등의 자그마한 요구에 대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대학종합평가의 100개 항목엔 이런 자잘한 부분이 없는 것일까?

"평가 잘 평가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수용하고 보는 것을 근거로 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생각할때 대중평은 성과에 비해 폐단이 더 많다."

"대학평가요. 잘못됐는데... 단지 예전 중앙일보에서 한때 각 대학의 부분별 순위를 발표한 것 있었죠? 그때 보니까 외대는 고시 합격률 등 학생들은 상위에 있는데 대학 환경, 투자 등은 순위안에 못들었는데 말이야. 재가 생각하기엔 뛰어난 학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것이 외대평가의 결이 아닐까요?" 말하는 민한주(법·법학 3)양도 평가를 위해 일주일만 버는 대학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외대발전을 고민하는 대학의 모습을 요구했다.

김재경 기자

대학종합평가 척도

평가영역	부분	점수
교육	교육목표	40
	교육과정	14
	수업	32
	학사	34
연구	연구실적	22
	연구수준	22
	연구수준	26
	연구수준	14
사회봉사	사회봉사	16
	사회봉사	12
	수업부담	12
	수업부담	10
교수	교수인사	24
	교수인사	16
	교수인사	24
	교수인사	32
시설·설비	시설·설비	26
	시설·설비	18
	시설·설비	24
	시설·설비	24
재정·경영	예산·회계	26
	회계·회계	14
	회계·회계	22
	회계·회계	14
계		500

외대발전의 새지평을 위하여 - 5개년 실천계획 탄생

외대발전, 하늘의 별따기인가



'시행착오의 순환고리'는 끊어야 한다. 매년 재기되는 학원지주투쟁과 이를 무마하려는 움직임, 진정한 외대발전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다. 책상에서 수북히 언저린 낱고 있는 파란 책자가 교육시장개방 속에서 알감을 모색하고 있는 외대의 모습에 과연 천연한 빛을 전할까?

대학의 중장기 발전엔 학생·교수·직원과 대학의 미래가 달려있다.

"잠미빛 청사진"이란 오명의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 중인 대학을 찾아 재검토 해보기로 한다.

92년 50여일간의 괴담, 93년 반반인투쟁 등 끊임없는 외대발전의 도와 목표를 밝히달라는 학생회측에 요구에 대해 학교측은 대학발전에 동감했음 뿐만 아니라 중반이 지난 지금도 "현재 70%정도 진척된 상태"라고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정한 외대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담판을 하지 않고 있다."

불사조

0...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호프, 문명정부가 그 관철을 연을. 우람 줄잡고 하고 있는데...

그 진상은 다름아닌 총기사용이라고. 헬기, 최후탄도 모자라 전차총, 고무총까지 등장하는 이 소의 제목은 'The Hard in Korea'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데... 제목처럼 청년학생은 쉽게 죽지 않는 'The Harder' 이기 때문이리라!

0...이제 외국복을 들어왔으니 개 농산들은 다 개방하진않네. 좀 있으면 교육이나, 통신이나 부동산이나 마구마구 개방하실테구요. 이처럼 그렇게도 남을 위



임무과실로 학생명단에서 제외되어 당장 도서관 출입이 불가능해졌다고 올렸다.

재일은행의 '제일'이 외로부터의 '제일'인지 아예로부터의 '제일'인지

0...이제 외국복을 들어왔으니 개 농산들은 다 개방하진않네. 좀 있으면 교육이나, 통신이나 부동산이나 마구마구 개방하실테구요. 이처럼 그렇게도 남을 위

이같은 평가의 근거에는 당시 학생·교수·직원의 학원 3주제가 참여해야 할 '외대총,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단지 기획조정처장을 비롯한 일부 교수들에 의해 주도되고 학생·종문·직원·학부도 측은 자문위원 형식으로 전략함에 따라 구성원의 요구에 맞는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기인한다.

△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특수성 추구 △서울·용인캠퍼스 학과발전 계획 수립, 발전 재원 확충 △학문연구의 비교우위 창출, 학술활동의 국제화 △학생후생복지 증진 △캠퍼스 교육환경의 촉진, 대학행정의 효율화 등 4개의 과제와 구성을 있는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대학으로서 뚜렷한 미래의 대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용인캠퍼스'에 외대 설립 등의 큰주요한 계획과 서울과 용인캠퍼스의 특화된 발전의 불분명, 지역화 부문에 대한 갈 부족,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 부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96년 또다시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교육정책변화, 학생참여 보장'을 위한 학원지주와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시행착오의 순환'을 안겨까지 지속할 지, 외대의 근본적 모순을 치유하기 위한 장기발전인 수립에 나서야 한다. 이에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의 성과와 오류를 되짚어볼까 한다.

한 세화화를 가장 쉽게 모방적으로 실현하고 계산지. 우리나라는 이제 찌르기만 하던 다 받아주는 나라가 됐거든요

(회)

정부의 제 2차 공을 시작됐다. 1차 폭력에서 제도인 폭력기물 동맹에 현충원을 초토화 하려다 실패한 후 완전무장하고 대

학원문을 공습하려 한다. 하지만 이라크가 미국에 걸사

장정의 자살로 나왔듯이 정부의 폭력에 현충원에 이장무

(일)

빛나간 폭격

비둘기철판

왕 산 골

알립니다

- 영어, 좋아하세요? 96여러분 도전하세요. VEC(영어회화 동아리)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9월 11일 오후 5시 ~ 5시 30분 인터넷을 실시합니다. <VEC(영어회화 동아리)>
- 제과점에서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시간부터 여러분들께 고소독의 일꾼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시간: 오전 9 - 11시, 오후 3 - 7시 (시간 조절 가능)
시간당: 2500원. "남학생 우대"
문의: (구내) 4192 <생활협동조합>

-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일시: 9월 11일, 오후 1:30 장소: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Drummer를 찾습니다. 96이고 배우고 싶으신 분은 학생회관 지하 아웃사이더로 오세요. 가르쳐 드립니다! <아웃사이더>

모입니다

- 영어과 동물패인 '동네북'이 종 물잔치를 엽니다. 때: 9월 9일 5시 장소: 노년극장 <영어과 동물패>

이문 별

알립니다

- 자판기 임대료로 지급되는 복지 장학금 신청을 도서관 앞에서 받습니다. 복지장학금 수료자는 민주노부를 할 때, 장학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일시: 9월 9일(월)부터 13일(금) 5시까지 지 급 액: 40만원 발 표: 16일 게시판으로 지급일시: 17일부터 <복지위원회>

- 성정치 연구 모임 회원을 모집합니다. 성을 둘러싼 권력기체들, 사회적 금기와 도덕적 편견들에 의문을 던지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대상: 학년 제한 없음 모임: 주 1회 성정치 세미나 연락처: 015-356-2890 <성정치 연구 모임, 세상을 향해 F.T.W>

모입니다

- 진주 동맹고 & 재일여고 개강 동문의 꼭 오세요. 일시: 9월 13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노년극장(도서관 앞) 회비: 2만원
- 용문고등학교 개강 동문회 일시: 9월 13일(금) 오후 5시 장소: 노년극장(도서관 앞) 회비: 2만원

모입니다

- 개강과 더불어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는 북학생형남고 고생 많 습니다. <총학생회>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0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330-4112

북 지원을 다녀와서...

비온 후 굳어진 땅에서 피어난 여유로운 미소



북한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어느 복지원.

오늘날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열매의 따스한 눈

같이 정겹게 느껴진다.
15명 남짓의 복지원 학생들이 여름캠프를 떠나는 날. 학학 기 동인의 눈물결던 수업과 물리치료의 기어올 모두 펼쳐 버리고, 다음 학기에는 더욱 희망차게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해보려는 캠프이기에 이 아침의 설렘은 더욱 큰 것 이었다.

그들의 목격자는 잠깐.
장대배가 퍼붓던 장대배가 갑자기 멎은 탓에 바스 안은 침 통같이 더웠다. 바리키는 햇볕과 함께 그들의 열기를 식히기 에는 예전처럼 바리도 무색하기만 했다.

바스 안에서 15명의 어린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희 번덕 거리거나, 침을 흘리는 등으로 흥분을 표현했다. 앞마를 을 수도 없는 언어로 이해할 수도 없는 몸짓으로, 그들의 기 령은 두배가 되어 갔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휴전관.

여기서 그들은 3시간 동안 '물놀이'를 즐기기로 되어 있었 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물놀이는 놀이 이전에 '교과' 이 지 '교과'인 것이다. 누구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없었다. 단지 열마의 팔에 떠밀려 튜브 위에서 아바들 '물러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물이 무서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 이, 열마들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 마냥 즐기고 싶지만 만일 발 때문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아이... 모두 안 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열려있는 한우리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모자가 있었다. 무관심한 듯한 눈으로 아이를 대하는 열마. 민준이 열마였다. 이미 모든걸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막상 그의 눈엔 그 어느 열마들보다도 깊은 슬픔과 그 뒤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의 열마와 아바가 첫 결혼했던 10여년 전, 그들은 '아름'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품앗이 신혼부부였다. 아들이 태어나면 폐기기로 유용한 판사로, 딸이 태어나면 예쁜고 상냥한 선생님으로 키우겠다고 마냥 부름이 있던 시절이 그 들 부부에게도 있었다. 아이의 용이로, 아이의 걸음이 높아 가 는 것을 보는 것 만으로도 행복에 비견된 어느날, 아이의 귀를 찾는 과정과 함께 그를 부부에게 내려진 형벌은 민준이

의 '소부족'으로 인한 '비성미'였다. 분명 잠깐 한 눈을 판 것 뿐인데, 분명 그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몇초를 갈 랍질로 민준이는 '장예인' 딱지를 가져가 된 것이다. 원인은 조그만 종알이 목에 걸려 기도를 놓쳤다는 것. 장건의 과성과 열마처럼 이들 부부가 본 '정신'이었을 때의 민준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민준이를 돌봐주고 그를 부부는 쉬었다. 알 수 없는 불길 한 느낌 때문에 이들의 가슴은 마구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눈물로 뒤덮여져 되어 누군가에게 목놓아 애원하던 열마들에서 열마였던 심정을 그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 다. 민준이가 '비성미' 선고 받은 후 3년은 정말 정말정 이었다고 한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실, 밀려드는 죄책 감, 반복되는 부부싸움... 그를 부부가 민준이의 현실을 인정 하기까지의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밤이 깊도록 찾 아 다녔던 병환들, 수시로 해졌던 매질, 먹을 수도 없는 밥알 을 입속에 주서 넘어 호르는 침을 무심하게 닦아내며 그들이 타락한 것은 허탈한 꿈에 대한 '체념'과 현실에 대한 '인정' 이었다. '장식'을 버린단 마음으로 '차도'를 버리는 마음으로, '유능한 사람'보다는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 기로 마음 먹었다. 아이 때문에 불행해진단 집안 분위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죄책감과 열마들간에 주먹이 들어 있던 민준이에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행복의 여신이 다 시금 민준이에 집안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민준이를 인정했다고 해서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 니다. 겉으로 보아도 민준이를 복지원으로 데려가 물리치료 를 시키며, 가족한 치료에 민준이도, 열마도, 선생님도 웃어 주 케 안고 돌아버린단 일, 민준이가 멋진 판사가 되어 있는 꿈 을 꾸고 있는 남몰래 흐느끼던 일,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병원 으로 내달리던 일...

특히나 마음속의 괴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 는 사실은 이들 부부를 더욱 외롭게 했다. 그러다가 찾게된 곳이 이 복지원이었다. 민준이와 같은 모습의 아이들이, 혹은 민준이보다 더 딱한 상태의 아이들이 해맑게 어울리며 치료 받고 있는 곳.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의 차도를 바라는 곳. 바로 그런 곳을 찾게된 것이다. 마음의 동지들... 아이도, 열 마도 눈에 띄게 좋아져 갔다. '동지'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그들은 용감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 병환에 이들에게는 또다른 좌절이 왔다. 민 준이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오년에는 학교 수업을, 오후 에는 복지원 치료를 받게된 즈음이었다. '어느날 학교 선생 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민준이 때문에 학교 오기 를 싫어하고 학부모들도 '민준이라는 애를 다른 반으로 보내 달라'고 전화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와 같이 공부하게 할 수 없다면... 민준이가 무슨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닌 데...' 열마는 울었다.

하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았다. 비가 온 후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되뇌었다. 세상이 이들을 외면할수록 더욱 강하게 일 어 서졌다고 보통의 자라들과 더 잘 어울려 아바들 세상을 주 도하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다. 그리고 이제, 이들 모자는 세상의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저 편안한 마음먹고 조금씩이지 않는게 큰 도움이 됐어요. 무리한 과욕도 버리고, 그렇다고 체념할 것도 없이, 그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사는거죠.'

물놀이를 끝내고 숙소로 가는 길.

모두들 고된 '훈련'에 지쳐 돌아 떨어졌다. 돌아 떨어지 건 아이들만은 아닌 듯, 열마들도, 선생님들도 차가 출발하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다. 모두들 잠든 뒤에 운동장에도 한 선생 님과 아바가 기회를 생겼다. 이미 서른의 중반이 지난 여섯살

남은 여러 교사들 중에서도 열마기로 정령이 난 사람이었다. 그저 서늘에 있는 대화 진학을 반대하는 부모들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선택한 재학의학과가 자신의 인생을 이리로 바꾸어 놓았다고. 처음엔 그저 '직업'이라고하고 자신의 입문만을 다 했다. 날이 갈수록 친절한 아이들의 마음과 애절한 부모들의 정성에 때로 되어 10여년 한걸음 가까워졌지만 무엇이 그 녀를 이토록 강하게 끌어당기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그 녀.

"처음 아이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웠어. 어떤 아이는 3달이 지나도 좀처럼 가까워질 수가 없지. 열마처럼 물리치료를 받 고 나서 점차 나아지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고 정말 보람이 느껴져요"

이들의 '제2의 열마'로서 자신이 생겼다고 한다. 2년 전, 자신이 직접 아이의 열마가 되자면 '예쁜 아이, 미운 아이' 구별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아보니,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귀여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아 무리 못난 아이도 부모에게만은 최고로 예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런 복직원의 입정정라는 아이와 열마의 입정 에서 모든걸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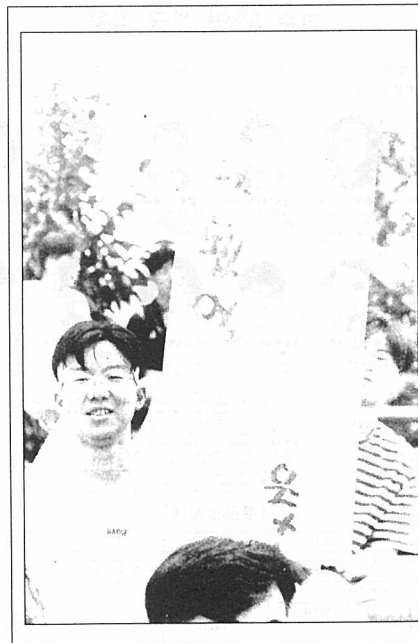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 주신 것들... 아기를 가진 동안 '장애'에 대한 노이제에 걸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거든요. 아 내 아이가 장애'였더라면 모든걸 끝까지도 도망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부들은 정말 출중해요. 그 모든 시 령을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이 선생님은 여기서 만나는 아이들보다 더 딱한 아이들이 있 다며, 장애 부모들에서 정성으로 태어나 결국은 부모의 무 능력 때문에 타자로 보내져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귀 씩 말한다. 더불어, 장애인 문제는 어릴 때 보다도 자라가 더 문제라는 이 선생님은 장애인들의 취업과 결혼, 결혼 후 육 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얘기한다.

밤이 깊어 이들의 1박2일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짓는 캠프 파이이가 있었다. 타오르는 모닥불에 그간에 흠뻑 땀을 흘렸던 눈물들 을, 맞아버린 심장과 함께 맞아버린 세상을 대한 사람, 자식 에 대한 사랑을 나눠 바라키라고 하려는 듯 이들의 가슴은 벅차 울었다. 자신을 궁지로 몬 세상에, 자신을 궁지로 몬 자 식들에게 한마디씩을 건네며, 이들의 가슴은 눈물로 젖어 갔다. 너무나 모질게 살아왔기에, 오히려 사소한 일에 크게 상 처받은 이들, 그래서 더욱 인성으로 이들,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들, 한방울의 눈물에 담아 말라버렸다.

이제 이들은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 다. 더욱 유독 서서 세상을 돌아볼 것이다. 안행가는 세상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띄울 수 있도록.

권민정
(동양·이러한 3)



사 진 수 필

가르침.
이 세대에서 우리는 잘 배웠는가.
모습을 입고 살아야하는 막힌 현실에 절망했고.
순수한 젊은 열정이 무참하게 매도 됨에 분노했다.

사회의 답답한 가르침...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다.
순수의 정의의 가르침이 없는 사회 속에 젊음이 싸워 살아야 할 가르 침.

시대에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젊음의 의무이리라.

한승주 기자

작은의대 **이야기**

그대가 사랑한
"그대가 사랑한" 시리즈
한때 어느 한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한 책인 "그대가 사랑한" 시리즈
그것이 "그대가 사랑한" 시리즈

한국의 미래를 대하는
1996년 한국과 세계의 성공으로
는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대하는
1996년 한국과 세계의 성공으로
는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대하는
1996년 한국과 세계의 성공으로
는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대하는
1996년 한국과 세계의 성공으로
는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대하는
1996년 한국과 세계의 성공으로
는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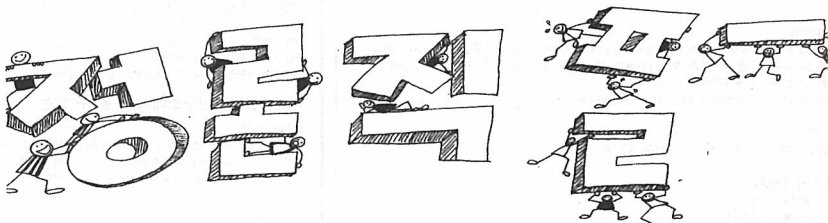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대하는
1996년 한국과 세계의 성공으로
는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대하는
1996년 한국과 세계의 성공으로
는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대하는
1996년 한국과 세계의 성공으로
는 부인할 수 없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습
모집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외대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론직필을 일궈나갑니다

외대 교자전집위원회

모집: 편집부·조사자료부·기획부
전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일시: 9월 19일 (목)까지
장소: (서울) 학생회관 2층
· (용인) 학생회관 3층
문의: (서울) 961-4409
(용인) 0335-30-4167

외대 화보

모집: 대학·사회·문화·사건·민화·광고부
전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일시: 9월 20일 (금)까지
장소: (서울·용인) 학생회관 2층
문의: (서울) 961-4152
(용인) 0335-30-4112

The Argus

모집: 취재·사회·국제·문화
전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일시: 9월 20일 (금)까지
장소: (서울·용인) 학생회관 2층
문의: (서울) 961-4153
(용인) 0335-30-4113

